

내년부터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사라진다

“장보기 불편·환경과 무슨 상관” 비판에도 강행 의지

박스에 테이프 붙이면 재활용 쉽지 않아... “친환경 아냐”

내년 1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가 사라진다. 소비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계와 체결한 자율협약의 시행시기를 늦출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마트와 체결한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협약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업체 자율로 종이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끈 등을 치

우며, 운영 중단 시기도 업체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강제 사항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은 정부와 업계가 3차례 회의를 거쳐 ‘자율’ 협약으로 진행한 만큼 강제나 처벌이 없다. 시행시기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굳이 협약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내년부터 업계의 계획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는 당장 1월 1일부터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운영 중단 계획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벌

이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농식품 등 부피가 많은 상품을 주로 다루는 탓에 자율포장대를 없애는 대신, 플라스틱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로 바꾸는 등 포장재 재활용을 돕는 방향으로 협약을 우회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장바구니 활성화 협약에는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한 내용은 포함됐으나, 유독 자율포장대 관련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율포장대 퇴출이 협약 취지와 어긋나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초 자율포장대는 비닐봉지처럼 재활용 또는 분해가 어려운 포

장재 대신 마트에서 버려지는 종이상자를 재활용하도록 한다는 ‘친환경’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자율포장대는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단 종이상자보다 다회용 장바구니가 폐기물 감축에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함께 쓰이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문제다.

종이상자에 플라스틱 테이프를 붙이면 재활용이 쉽지 않다. 테이프를 떼어내는 비용보다 소각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한 해에 3개 대형마트 기준 658t, 면적으로 따지면 삼암구장(9126㎡) 약 857개를 덮을 분량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를 내놓는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불편 탓에 직접 장보기보다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자가 몰린다면, 오히려 스티로폼과 테이프 등 재활용이 힘든 포장재 사용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협약 추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에 수반되는 폐기물 문제는 택배업계 협약을 통해 별도로 풀어나갈 문제이며, 직접 장보기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업계가 대여체계 구축·도우미 배치 등 편리한 장바구니 사용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당초 이번 협약의 취지였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율포장대 퇴출에 따른 각종 소비자 불편과 종이상자를 주워 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적용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첫 출근 날인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2부제로 짝수 차량만 출입하고 있다.

경찰, ‘국제PJ와 부두목’ 6개월만에 공조수사... ‘늑장’ 비판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법경찰청이 50대 사업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도주 중인 국제PJ와 부두목 조모씨(60)에 대한 공조수사에 돌입했다.

2일 광주지방법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사업가 살해 주범인 조씨 검거를 위해 광주청 공역수사대 8명, 광주 서부경찰서 강력 1개팀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광주청 추

적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기북부청과 조씨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북부청은 5월부터 조씨 행적을 추적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씨는 사건 초기 “광주에서 수사하면 자수하겠다”며 조건부 자수 의사를 내비쳤고, 도피 중에도

자인에게 “올해는 환갑잔치를 못 하겠다”는 등 문자를 보냈지만 경찰은 그의 도주행적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인파에서는 조씨 주거지와 주 활동무대가 광주인데다 광주경찰이 조씨 주변 인물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PJ와 부두목 등 조폭 계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광주경찰의 수사력을 더해 조씨의 도피행각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어린 물고기 300상자 불법 포획 60대 선장 입건

완도해양경찰서는 2일 어린 참조기를 불법으로 잡은 후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A씨(6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33분쯤 전남 완도군 고금면 한 선착장에서 체장(대각선 길이) 15cm미달 어획물 300상자를 하역해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총 어획물에 작은 어획물을 20% 초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양식장 사료로 팔기 위해 참조기 800상자(1상자당 23kg) 중 체장 미달 참조기 300상자를 초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A씨가 제주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작은 어획물을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다”고 말했다.

청소하다 주운 100만원 행간 환경미화원 입건

청소를 하다 주운 100만원이 든 돈봉지를 행간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길거리에 떨어진 현금 봉지를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A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57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거리에서 청소를 하다 B씨(41)의 현금 100만원을 주워 행간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인 B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돈을 잃어버리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광주 동구 금남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도 거리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 C씨(42)도 현금 100만원이 든 손가방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여수 앞바다 29명 탄 요트 좌초...해경 전원 구조

여수 앞바다에서 29명이 탄 요트가 좌초됐으나 인명피해 없이 승선원 모두 해경에 구조됐다.

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쯤 여수시 산월동 사도 남쪽 약 130m 해상에서 43톤급 요트 A호(승선원 29명)가 좌초됐다. 선장 B씨(32)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대는 A호 승객 26명(성인 17명, 소아 9명)을 구조장에 옮겨 태우고 인근 봉산동 부두에 모두 안전하게 하선시켰다.

또 구조대 2명이 바다에 들어가 A호 선체를 확인한 결과 좌현 선수 수면 아래에 과공이 발생했으나 별다른 침수피해는 없었다.

A호는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떠올라 좌초 상태에서 벗어났고, 자력 항해로 인근 마리나 항구로 입항했다.

관광유람 영업용인 선박 A호는 사고 당일 오후 5시쯤 이순신 마리나항에서 승객과 선원 29명을 태우고 출항, 해상투어를 끝내고 입항하다 저수심의 암초에 걸렸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상태 음주측정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내 아내랑 바람 펴?” 지인에 흥기 휘두른 40대

강진경찰서는 2일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50분쯤 강진군 한 단독주택에서 알고 지내던 B씨(44)에게 흥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해를 풀자”며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B씨와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목 부위에 약 10cm정도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